

Q 검색

현대불교

f ch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순천 송광사=노덕현 기자 | 입력 2021.09.30 21:53 수정 2021.10.01 10:21 댓글 0



상월결사 9월 30일 순천 송광사에서 오리엔테이션

여야 대선후보들 순례에 찬사
국난극복 국민화합 계기 기대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 공개
108염주 및 재가자 가사 전달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재가자 가사를 전달받은 순례단원들이 합장 반배로 예를 표하고 있다.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지고 그 신심을 바탕으로 국난극복을 모색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입재 전야를 맞았다. 전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난극복 천리순례길에 대한 대선 후보를 비롯한 사회각계 인사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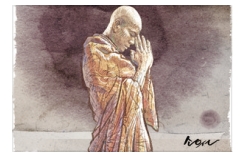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30일 순천 송광사에서 순례단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송광사 저녁에 불을 시작으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사회 하에 송광사 수련원장 현묵 스님의 사찰안내, 송광사 소개영상 상영, 순례단 청규 및 생활규칙 안내, 순례단에 대한 108염주 및 재가자가사 전달, 108응원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최신뉴스

“경이로운 존재의 순간이 화양연화”



갯짜나, 찌다뻗조따왕을 교화시키다



한국선 주도 세력으로 전승된 임제 선법



중생 괴로움 없애주는 경전

불교계율, 이 시대 나침반 될 수 있을까

인기뉴스

- 1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
- 2 대기업 과장서 재한미안마학생聯 지도
- 3 제25회 울산불교합창축제 성료
- 4 (재)선학원 '성범죄 이사장' 법진 스님 자
- 5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studio G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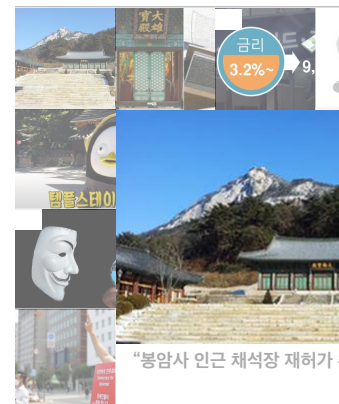
[현대불교 NEWS] 태공 월:





[영상뉴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식 다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 쿨

특히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교계 스님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원욱 국회정각 회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이덕화, 김해욱, 이경규 등 불자연예인들의 순례단을 향한 응원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속히 세계인이 모두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찾아와 백만원력결집의 현장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걸으며 옛 조사 스님들의 발자취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자 모두가 함께 대원력을 성취하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반영하는 재도약의 불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경우 스님,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조계종 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도 순례단을 향한 응원을 보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에서는 순례에 대한 각계 응원이 이어졌다.

정치계에선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대한 국민화합 국난극복 대장정의 의미를 높게 샀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쉽지 않은 천리길 순례에 결연하게 나서주신 순례단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행정진을 멈추지 않는 뜻깊은 서원을 가슴에 잘 새기고, 천리순례단의 지혜와 불교계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인 윤석열 前검찰총장도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통해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불교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원만히 성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광사 수련원장 현묵 스님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와 송광사의 유래 등을 순례단에 설명하고 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이번 순례에서 길위에서 걷고 길위에서 수행하며 길위에서 자는 수행의 길을 함께 하면서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국난 극복 의지를 모으는 여정”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원력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며,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삼보사찰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문화 현장으로 문화재청과 불교계는 앞으로 서로 협조하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순례단원들에게 108염주를 나눠주고 있다.

각계 응원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천리순례를 앞두고 특별히 제작된 재가자 가사와 108염주가 순례단에 전달됐다. 회주 자승 스님은 각 조별로 직접 물품을 전달하며 순례를 앞두고 이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층 강화된 지침과 청규, 삼보순례에 맞게 새롭게 만든 공양기도문 등이 공유 됐다.



재가자들에게는 재가자 가사가 함께 전달됐다.

한편, 상월결사는 10월 1일 송광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입재한다. 입재식에 앞서 오전 4시 새벽예불과 함께 오전 7시 국사전 및 보조국사감로탑 등 승보종찰 송광사 참배가 진행되며, 입재식에서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죽비전달, 고불문 낭독 등이 이어진다. 이날 송광사에서 용바위 생활체육공원까지 약 22Km 구간의 순례도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 송광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송광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승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이시각추천뉴스

- [도반함께 천리순례] "마음으로 서로 밀고 끌고"
-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 취소하라"
- 동아시아 불교 속강 '땅살법' 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

[도반함께 천리순례] "마음으로 서로 밀고 끌고"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AD

by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AD

AD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주식할때 '3가지'기억하면 '큰돈'번다

"호국불교 상징 금산사 뇌묵처영 스님 조명돼야"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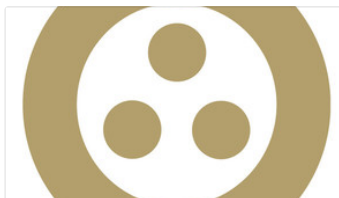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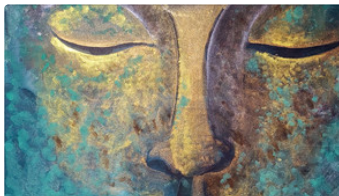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佛法 담은 미술로 지친 대중 위로

현대불교

UPDATED. 2021-10-11 22:05 (월)

☎제보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